報告

일본 전자정보통신학회 이모저모

方 勝 楊
浦項工大 電算學科 敎授

지난 '93년 1월과 2월에 걸쳐 과학재단 지원으로 일본을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상기 학회 사무실을 찾아가 총무과장 Sonobe씨와 면담하였다. 이 보고서는 상기학회를 정식으로 소개한다라기보다 이 면담에서 수집한 자료를 적어놓는 형식을 취한다. 더구나 이 방문이 우리 학회의 대표자격이 아니라 개인자격이라는 면에서도 내용이 저자의 개인적인 관심사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학회 발전을 원하고 다른 학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많은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혹시 잘못된 점, 의문점이 있으면 저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란다.

1. 이 학회는 '92년에 이미 75년의 역사를 갖는 오래된 학회이다. 일본 전자회사가 통신이 강하듯이 이 학회도 원래 '전기통신학회'였던 것이 그후 '전자통신학회', 그리고 현재의 '전자정보통신학회'가 되었다. 회원은 현재 38만 명이며 그간 회원 수 추이는 그림 1을 참조 바란다. 회원 종류가 다양하여 명예원, 정원, 준원(대학원생은 여기에 해당), 학생원(학부학생을 대상), 특수원(도서관등의 단체) 및 유지원(찬조회비를 내는 기업 등)이 있다. 회비는 정원이 10,000엔, 준원이 7,000엔, 학생원이 3,500엔이며, 이와 같은 회원종류의 다양화가 회원증가에 기여했다고 보고 있다. (재미있는 아이디어. 그러나 따져보면 경영학 교과서에 있는 이야기.)

2. 이 다양성은 연구회에서도 볼 수 있다. 연구회에도 종류가 3가지 있으며 제1종 경우 거의 매월 연구발표회를 개최하면 그 논문집은 학회에서 만들어준다. 제2종 경우 발표회가 1년에 몇 번 밖에 없으며 논문집은 각 연구회가 알아서 처리한다. 제3종 경우는 학회에서는 아직 비공식 연구회인 셈. 연구회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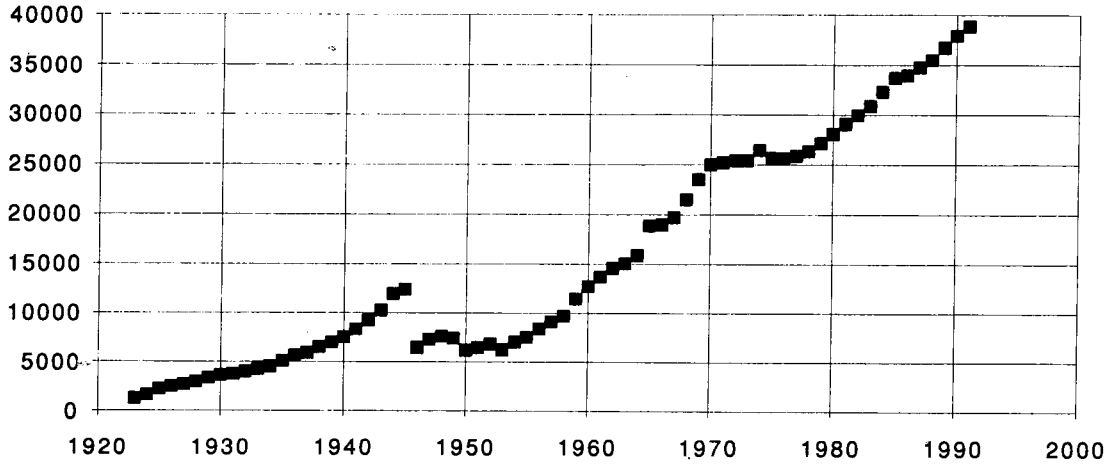

그림 1. 년도별 회원수 추이(단위:명)

등록된 수는 2만 5천명이고 이들이 학회의 핵심 member가 되는 셈. 즉 이들은 적극적으로 학회에 참여하고 있고 나머지는 주는 것을 그냥 받아먹는 수동적인 회원이라는 이야기. 연구회에서 발표되는 논문 수가 1년에 5천 건이라고 한다. 일본에서는 연구결과를 우선 해당 연구회에서 발표하고 한번 평가를 받고 논문지에 투고하는 경우가 많다.

3. 지부의 경우 일률적인 본부의 지원이 없으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지부가 필요 경비를(모금을 포함하여) 마련하여 집행한다. 그러나 지부에서 여는 Seminar, 강습회 등은 거의 본부와 같이 주최하기 때문에 비용도 본부가 내고 수입도 본부가 가져간다.

4. 출간물도 다양하며 월간 학회지에 월간 일본어 논문지 6종류, 월간 영문 논문지 3종류에 격월간 영어 논문지가 1종류 있다. 일본 정보처리학회가 논문지를 하나만 내는 데에 비하면 논문들의 수준을 의심케 한다고 할까, 이 학회 회원들의 논문제작에 대한 열성에 감탄한다고 할까, 하여간 큰 차이다. 물론 이것은 그 학회의 철학하고 관련되는 것이니까 어느 쪽이 좋고 어느 쪽이 나쁘다고 할 수 없다. 그 외에도 출판사와 연계하여 대학 교과서 발간,각종 Hand Book의 발간 등 출판에 대하여도 열심이다. 우리도 배울 점이 있는 것 같다. 특히 학회지, 논문지에 게재하는 광고는 학회 전 수입의 10%가 된다고 한다.

5. 전국대회는 봄, 가을 2번이 있는데 봄은 지방(논문 수 약 3,000), 가을은 동경(논문 수 약 2,000)에서 3-4일씩 연다. 일본에서는 전국대회를 학기말 break때 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길어도 Parallel Session이 많음은 우리와 비슷하다. 전국대회의 수입은 논문집 판매(분야마다 따로 제본 및 판매), 발표비(논문 게재료와 비슷한 개념, 건당 3,000엔), 참가비(정원 2,000엔, 준원 500엔, 학생원 무료)로 이루어진다. 즉 전국대회를 위한 기업의 찬조금은 따로 걷지 않는다. 전국대회 지출은 인쇄비, 장소사용료, 그리고 간친회(일부 본인 부담). 그러나 우리 나라 같은 점심 식권 제공은 없다고 한다.

6. 이 학회의 예산은 12억엔(예산추이는 그림 2 참조)이며 수입의 30%는 개인 및 단체의 회비로 들어오고 나머지는 사업에서 번다. 단체회비는 한 단위 3.5만 엔으로 하고 대기업은 약 50단위를 낸다. 단체회비 수입의 합계는 약 6천만 엔이다. 사업수입의 내용은 논문 게재료 및 별도 인쇄료, 광고, 출판, 그리고 강습회 등이다.

7. 현재 사무국에는 직원이 34명이 있다. 회장의 임기는 1년이며 부회장은 4명이고 지방에서 2명, 동경에서 2명 선발된다. 1년씩 overlap하게 하여 해마다 2명씩 선출된다

8. 일본에서는 (미국도 그렇지만) 왜 이렇게 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학회에 가입하고 있고 활발히 학회 활동을 하고 있는가? 물론 선진국은 모든 국민 수준이 높다는 infra-structure적인 이유도 있으나 현실로는 어떤 이유일까? 비밀은 일본 회사의 학회 활동 장려책에 있는 것 같다.(우리 나라도 수준이 올라가면 이렇게 되겠지만) 우선 회장선거, 역대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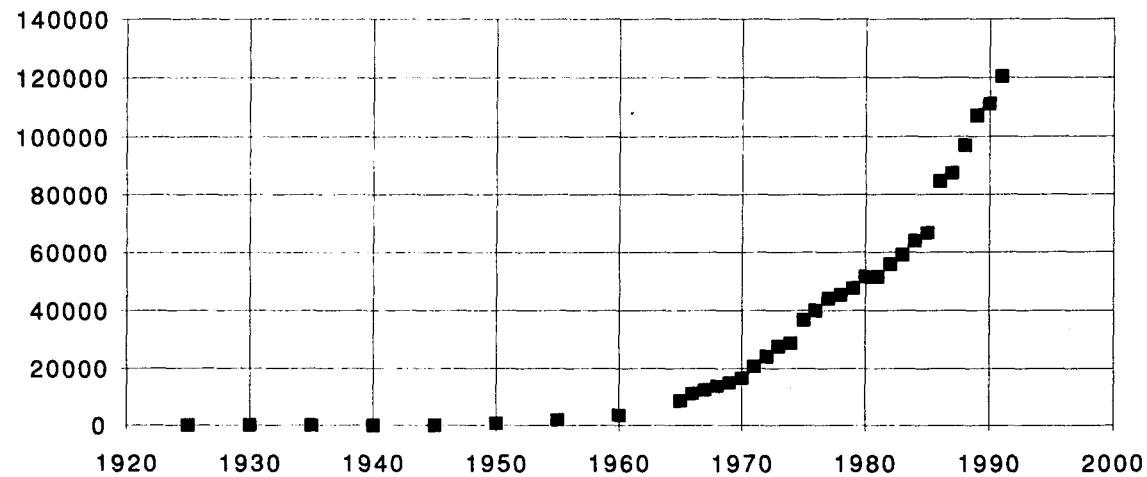

그림 2. 년도별 예산 추이(단위:만엔)

명단을 보면 NEC, HITACHI, FUJITSU등의 사장, 부사장들도 많다. 그러나 회장은 선거로 뽑기 때문에 선거에 이기려면 자기편 정회원을 늘려야 한다. 따라서 자기 회사 사원을 학회에 가입시키는 동기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또한 일본은 경쟁사회이다. 한 회사에서 회장이 나오면 다른 회사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그리고 심지어는 학회 회비를 회사가 부담해 주는데도 있다고 한다.(학회 천국이라 할까!)

9. 그러면 이 학회에 문제는 없는가? 물론 있다. 우선 회비는 자주 올리지 못하지만 지출은 해마다 늘어나기만 한다는 것. 그리고 영어 논문지는 적자인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실은 영어 논문지는 내외 양쪽 압력 때문에 발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셋째 이유가 생겼는데 그것은 앞으로 모든 작업을 컴퓨터로 하게 되면 한자의 각 나라 code가 틀리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표준화문제 때문에 아무래도 영어로 통합하는 것이 제일 편하다는 것. 끝으로 회원이 많아져서 회원의 대중화에 따라서 회원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 즉 가입과 퇴회가 잦다는 이야기. 그리고 대중화에 따라서 좋은 뜻에서의 '특권 의식'이라 할까 'elite의식'이 희박해져서 학회가 무거워진다고 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기존 기업들이 자꾸 전자 특히 통신분야에 진출하기 때문에 학회의 발전은 낙관적이라고 보고 있다.